

임시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3년 3월 28일(목) 10:00-12:00
- 개최장소 : 이랜드빌딩 회의실
- 총이사수 : 6명
- 출석이사 : 4명(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박영희 이사)

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부설창전데이케어센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 심의 건

- ▶ 이경준 이사장은 산하시설인 마포구립 창전데이케어센터의 재수탁 신청에 대해 의안을 개진하고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마포구립 창전데이케어센터 재수탁 사유와 진행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영일 사무국장은 마포구립창전데이케어센터는 현재 노인장기요양 기관으로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호 대상인 치매 어르신 보호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매우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마포구 및 서울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마포구립창전데이케어센터와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창전실버문화센터 재수탁 운영이 필요함을 수탁사유로 설명하고, 법인전입금은 아래와 같이 2013년~2016년 까지 3년간 총 1천5백만원이 소요됨을 설명하다.

- 아 래-

○ 3년간 법인전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총계	2013년 (6월)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계	15,000	2,300	5,000	4,700	3,000
창전데이케어센터	8,000	1,300	2,500	2,700	1,500
창전실버문화센터 (노인여가프로그램)	7,000	1,000	2,500	2,000	1,500

▶ 이태웅 이사는 현재의 마포구립창전데이케어센터가 고령인구 및 치매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사회적인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바, 마포구립창전데이케어센터가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 이용시설의 표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동의하다.

▶ 윤형주 이사도 마포구립창전데이케어센터가 그 동안 타기관의 모델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복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라며,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에 대해 동의제청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마포구립창전데이케어센터의 재수탁 신청 및 지원계획”의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 2호 의안> 2013년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2013년 산하기관의 추경 예산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영일 사무국장은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기능보강사업 추가, 노인일자리사업 증액, 공모사업수입 증액, 기타보조금 증가, 후원금 증가 등의 예산변동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포노인종합복지관 3,233,532천원,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414,158천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2,809,530,641원의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을 설명하다.
- ▶ 이경준 이사장은 정영일 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2013년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이사들의 의견개진과 심의를 구하다.
- ▶ 박영희 이사는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바,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승인에 동의함을 표하다.

- ▶ 이태웅 이사가 동의 제정하다

- ▶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3년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 건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이경준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은 12시 00분

2013년 3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이 사 이 태 웅



이 사 윤 형 주



이 사 박 영 희

